

‘붉은 바다’의 공포… 전남도, 적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여수·고흥 해역 적조주의보 발령…300억 예산 편성 방재장비 구축
대책본부 가동 94곳 수시 예찰…어민들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 강화

전남도가 전남 바다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에서 최근 5년간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적조 주의보 발령 시기도 작년보다 3주가량 늦었지만 3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조 피해 최소화해 나갔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해양수산물학원은 29일 오후 2시를 기해 여수와 고흥 앞바다에 적조 주의보를 발령했다. 여수 앞바다에는 개도, 군내(서외), 백야, 사도, 상화도, 신월, 예교, 월호수도, 자봉도, 하화도, 합구미, 화태(묘두), 여자만 외측이 포함됐으며, 고흥 앞바다에는 남열, 대항도, 붓돌바위, 시호도, 염포 등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다.
적조 주의보는 적조생물인 코롤로디니움이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되며, 개체수가 1000개 이

상일 경우 경보로 격상된다.
국립해양수산물학원은 적조생물 성장에 적당한 수온이 유지되고 있고 이번 주 초 전국적인 강우로 육상 영양염 유입이 예상돼 적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적조 주의보 발령 시점은 전년(8월2일)보다는 늦다. 지난 2019년 5억원의 적조피해가 발생한 이후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적조피해 어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남도는 긴장감을 늦추기 않고 있다.
전남도는 적조 주의보가 발령되자 즉각 '적조 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또 적조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94개에 대한 일일 예찰에 들어갔다. 적조 명예감시원 242명이 수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결과는 어업인에게 신속 전파하기로 했다. 어민들의 개인 적조 방제

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 강화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예방에 사업비 317억원을 편성하고 산소공급기와 정화선 등 방제 장비 9종 3318대를 구축했다. 또 황토 6만 1000t을 확보했다. 특히 신속한 방제 작업을 위해 추가 예산을 건의해 국비 8억원도 추가 확보한 상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6월 여수 남면 해상에서 민·관·경 10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적조·고수온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을 계기로 적조 예비특보 발령 직후 여수에서는 가두리 밀집 해역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즉시 전개했다. 이후 방제선박과 살포장비 추가 투입으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적조 특보에 따른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대처와 행정력 총동원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들은 자기 어장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 먹이 급이량 조절, 야간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요령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달구지 모는 북한 개풍군 주민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소달구지를 몰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광주·전남 ‘8주 연속’ 증가

여름철 이동량 증가·변이 바이러스 확산 분석…방역망 촘촘히 가동

광주와 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9월 세계강건수련대회로 앞둔 광주시는 국제 행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방역망을 촘촘히 가동 중이다. 전남도 역시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만에 각각 0명에서 18명, 6명에서 18명으로 급증했다.
전국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는 26주(6월 22일~28일) 63명에서 32주(8월 3일~9일) 272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광주는 0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시에서도 7.8월 코로나19 검출률은 18.5%로, 56월(3.7%)보다 5배 증가했다. 생활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고령층과 저지질환자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한다.
광주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시민 협조’를 3대 방역원칙으로 설정했다. 표본감시기관은 기존 5곳에서 종합병원급 21곳으로 늘렸고, 사·구청 전담대응조직 32개팀 102명을 상시 운영한다.
학교 전파 차단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증상 발생 시 호흡기전담병원 방문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남도 역시 확산세가 뚜렷하다. 최근 8주 연속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8월 3주 입원환자는 18명으로 2주 전보다 3배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75%를 차지해 위험성이 크다.
전남도는 6월부터 ‘코로나19 전담대응기구’를 가동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의료기관 모니터링 대상을 45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했다. 또 감염취약시설 733곳에 방역물품 12만 개를 배부했고, 추가 지원도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15일부터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의 확산세는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대 10명 중 8명 고혈압 환자인지 몰라

질병청, 심혈관질환 예방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9월 1~7일)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뜻하는 것으로, 질병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미리 파악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2014년부터 캠페인을 해왔다.
질병청은 이 캠페인에서 20~40대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일찍 인지해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뇌혈관질환도 더 빨리 인지해야 치료·관리할 수 있는데,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가 알았으나 40대는 50.7%만, 30대는 24.8%, 20대는 19.3%만 알고 있었다.
고혈압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만성콩팥병이나 망막병증, 신장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을 막으려면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하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아야 한다.
또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설문·친환경 교통 이용시 포인트 드려요

광주시, ‘참여형 정책’ 본격 확대…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설문조사 참여와 친환경 교통 이용을 포인트·마일리지로 보상하는 ‘참여형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시민의 일상적 공익활동을 돈처럼 쓰는 혜택과 연결해 지속가능 도시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방향 소통 플랫폼 ‘광주온(ON)’에서 시청 설문 응답 때마다 700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1만점 이상은 은누리·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9~11월 시범운영하는 ‘시민참여수당’은 앱 ‘워크온(Walk On)’을 통해 버스·지하철·자전거 이용시 회당 200포인트, 하루 8000보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최대 3만점을 적립해 준다.
시범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한다.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는 ‘지(G)-패스’도

핵심 축이다. 어린이(6~12세)는 무료, 청소년(13~18세)은 50% 할인을 적용한다.
성인은 정부 ‘K-패스’와 연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 달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다. 4인 가족이 개인당 월 40회씩 이용할 경우 연간 73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생년월일을 등록한 교통카드로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은 은행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홈페이지(korea-pass.kr) 회원 가입 후 연계하면 된다.
워크온 실적은 승하차 기록·자전거 주행·걸음 수로 인증하며, 시는 학교·직장 캠페인과 참여 리더 교육을 병행해 생활 속 참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발전자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전기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소 내용

발전소명	태양광발전소(태양광)	태양광발전소(태양광)	태양광발전소(태양광)
소재지	북쪽읍	관동면	관동면
용량(㎾)	5000	1000	1000
설치면적(㎡)	무인도 해역면적 800㎡, 임면 100㎡	무인도 해역면적 100㎡, 임면 100㎡	무인도 해역면적 100㎡, 임면 100㎡
면적	약 273,121㎡	약 480,747㎡	약 927,491㎡
시범기간 및 운영	2028년 07월 시범사업(태양광) 운영기간은 개시 후 20년		

2. 사업계획서 열람방법
: dasbak86@gmail.com (이메일 문의)
3. 의견제출기간 : 2025.09.01.~2025.09.07.
4. 의견제출방법
: 인접사상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 및 E-mail 제출바랍니다.
- 우편 : 광주광역시 북구 청단연산로30번길 41 (연제동) 2층
- E-mail : dasbak86@gmail.com



고급 전원주택 매매 (평당 위치)
전남 담양 수백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